

# 편 치 라인

## 육용종계 50万수

「육용종계 50만수는 일반산업 경기의 호황으로 계육소비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생산파인 협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원종계농장(G.P.S)들은 모임을 가지고 양계업계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출선해야 할 것이며, 양계인들을 보호하고 양계업 전반의 안정된 경기를 위한 간접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는 대한양계협회에 참여하여 76년도의 정확한 생산량과 이로 인한 77년의 육용업계의 예상추세를 일반에게 주지시키고 동시에 종계생산 조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필자주〉

### ● 76년도 육용종계 생산수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76년도 국내에서 종계(P.S)를 생산할 수 있는 계통으로는 국산계로 한협 603, 외국계로 하바드 하이브로(Hybro), 필취(Pilch), 세이버 스타브로(Shaver Stabro) 등 5종류뿐이다. 한협 603호는 한협가금육종농장의 자체육종품종으로 이 계통에 대한 순계(Pure Line)와 원종계(GPS)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위의 다섯 계통 중에서 가장 많은 종계(PS)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하바드는 대구의 신기농장에서 75년 8월에 GPS 2,000 수(우계통기준)를 미국 하바드 원종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대개 76년 3월경부터 종계(PS)를 생산하기 시작한 계통이며 한협 603 다음으로 많은 종계(PS)를 생산할 수 있다. 그 외 하이브로(천호부화장), 필취(한국카길(주)), 세이버 스타브로(한국 카-칠(주)) 등은 원종계(GPS)가 '74년 이전에 수입되어 대체적으로 1회~2회의 강제환우를 거쳤으며 각각의 종계(PS) 생산수량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협가금육종농장이 1976년 5월



신 정 일  
〈유 일 농 원 영 업 부 장〉

24일 제31회 한협협력회의에서 공식발표한 것을 보면 아래와 계통별 육용종계생산 및 예정수수 현황을 살펴보면,

#### • 76년도 육용종계(P.S) 생산예정(한협주산)

Shaver Starbro	20,000~25,000수
Pilch	15,000~20,000수
Hybro	40,000~50,000수
Hubbard	70,000~15,000수
한협 603	230,000~350,000수
합    계	375,000~595,000수

한협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육용종계 생산량을 '73년 30만수, '74년 28만수, '75년 26만수로 추정하고 76년도의 종계적정수량을 35만~37만수로 어림잡았으며 종계의 생산조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77년도의 육용업계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협은 한협 603호의 생산예정수가 23만수에서 35만수까지 많은 진폭이 있는 이유로서 '76년도에 최소 23만수를 생산예정으로 있으나 종계의 생산은 35만수까지 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있으므로 업계의 상황과 각 원종농장간의 생산조절 진행여부를 보아가며 생산수량에 융통성을 두기위한 숫자라고 해명하고 하바드의 생

# 편 치 라인

산수량이 7만~15만수로 표시된 것은 '75년도에 수입된 하바드의 원종계(GPS)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어 최소와 최대의 추치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천호부화장에서는 '76년의 육용종계 생산예정수수를 아래와 같이 추산하고 있었다.

'76년도 육용종계 생산예정수수(천호부화장 추산)

Shaver Starbro	45,000수
Pilch	
Hybro	45,000수
Hubbard	120,000수
한협 603	250,000수(확실 (30만수 가능))
合    計	460,000수 (51만수 가능)

천호부화장은 '74년도 종계생산 31만수, '75년도 30만수로 추정하고 소비 및 산업신장을 20% 감안할 때 '76년도의 육용종계 적정생산규모는 36만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76년도의 현재 생산예정수수 46만~51만수는 절대수량이 많은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신기농장의 이상윤씨는 '75년도에 수입된 Hubbard 663의 원종계(GPS)가 2,000수(우기준)이므로 '76년도 하바드 663 종계(PS) 생산수량은 7만~8만수 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76년도의 육용종계 생산예정수수는 정확히 몇 수정도가 될 것인가?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필자는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76년 도 육용종계 생산예정 수 수	Shaver Starbro Pilch Hybro Hubbard 663 한협 603	10만수 10만수 27~30만수	합 계 10만수 47만 ~50 만 수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없는 불투명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76년도의 육용종계 생산예정수수는 47만수보다 50만수쪽이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육용종계 50만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76년도의 육용종계 생산적정수수를 대개 36만수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해동안의 종계 생산수수와 소비신장을 등을 고려한 숫자이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요인만을 고려한 이 36만수의 적정규모는 '77년도의 육용종계에 매우 소망스러운 수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정규모 36만수와 생산예정 50만수와의 사이에는 무려 14만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적정규모 36만수는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업자나 고기를 생산하는 육계업자 공히 좋은 경기를 누릴 수 있는 수량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 육계업자보다 부화업자가 더욱 재미를 볼 수 있는 수량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해서 적정규모 36만수자 40만수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매우 의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와 일반산업경기의 호조는 국민 축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단순한 산출적인 결론 이외에 풀러스 알파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의 닭고기 소비경향이 예년의 소비패턴과 같은 단순한 주기를 벗어나서 넓은 진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에는 종계를 임의대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년 5월을 기준으로 몇 달 사이에 종계가 집중적으로 수입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 육종된 원종계나 혹은 수입된 원종계(GPS)에서 종계가 년중 5월~6월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고르게 출하 입추되어 실용초생주 생산경향과 국민의 닭고기 소비경향이 부합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 우기 계육소비의 가장 강력한 상대인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서 돼지고기는 어느 정도 단기간내에 다량 증식이 가능

# 편 치 라 인

하지만 쇠고기는 단시일내에 다량증식이 불가능하므로 양계업계가 대동단결하여 대한양계협회를 주축으로 맑고기 소비증대에 대한 강력한 여려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실천한다면 계육소비의 자연적인 증가추세 외에 더욱 많은 효과를 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76년도 육용종계의 적정생산 규모는 40만수까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50만수는 곤란하다. 육용종계 50만수는 77년도의 우리 양계인들에게 매우 소망스럽지 못한 상황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 원종계(GPS)농장들은 모여야 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생산조절에 대한 매우 많은 논란과 실제적인 경험을 겪어 왔다. 생산량이 많아서 생산물가격이 하락될 때마다 우리는 생산조절을 부르짖었고 각 월간잡지의 권두언에는 저의 매회마다 양계인의 협동, 양계인의 단결과 생산조절에 대하여 언급되었었다. 그러나 올해 '76년도의 육용종계에 있어서만은 예외였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육용종계의 생산조절에 대하여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대개가 염려는 하면서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몇 번쯤 언급되어 문제점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우선 원종계농장들이 모여야 할 것이다.

만약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한 원종계인데, 혹은 비싼 경비를 투자하면서 육종한 원종계인데 왜 종계생산을 조절하라고 하느냐?” 혹은 남이야 어떻게 사업을 하든 무슨 상관이며 왜 귀찮게 구느냐?는 식으로 반문한다면 이야기는 끝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양계협회를 주축으로 산학협동되어 양계인의 단결과 양계경기의 안정 등을

도모하여 온 뜻깊은 의의가 하루아침에 물거풀이 되어 버리고 양계업계는 난장판 업계로 변모해 버릴 것이다. 또한 이를 주선하고 안정된 양계업계를 위한 선도적 역할의 임무가 있는 대한양계협회에다 원종계농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협회에 어디 있느냐 반발한다면, 회원들로 이뤄진 협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런 다른 양계인들로부터 지원받을 소극적인 행동을 버리고 시급히 협회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원종계(GPS)를 보유하고 있는 다섯 부화장 중의 어느 누구도 이를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각 원종농장은 종계를 수입할 때 협회의 생산조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의 서를 이미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적극 호응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물론 양계생산물의 조절은 꼭 원종농장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계(PS)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화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실용초생추를 구입하는 일반 육용업자들에서도 입추조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3단계 조절계층에서 가장 손쉽고, 바람직하며 솔선수범해야 할 계층이 원종농장에서의 종계생산조절이다. 일반부화장에서의 실용초생추생산조절은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다.

77년도에 계속 육용종계가 생산될 수 있는 계통은 한협 603호와 하바드 뿐이며, 78년 이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순계(PL)가 도입 육종되어 종계가 생산되기까지 국산계로서 육용종계를 생산시판할 수 있는 계통은 한협 603호 뿐이다. 그러므로 한협이나 하바드가 생산조절을 기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맑 경제능력검정에서 한협 603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외국수입계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 현업계에서 종계의 생산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한 협에 더

많을 것이며 능력없는 종계업자에게 마구 종계를 분양함으로 인한 결과는 한협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기농장의 하바드 663 역시 강제환우 후에 77년도 종계 생산時 업계가 불황이 되어 종계판매가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면 그 또한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가 된다. 하바드 663은 강제환우를 좀 더 일찍 실시하므로서 생산조절에 기여하고 더욱 성과를 높인 후 77년의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은 벌써 7월 초순이다. 때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원종계농장들은 모여야 할 것이다. 모여서 서로의 관심사를 충분히 논의하고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양계업계를 위한 훌륭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모임의 뜻이 꼭 생산조절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우선 각 원종농장에서 생산예정인 종계수량을 양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모든 양계인들의 생산조절을 위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한 모임의 뜻이 달성될 수도 있다. 원종농장들의 모임에서 원종계의 정확한 도입수량과 종계 생산예정수수를 발표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모임의 뜻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정규모 40만수를 위한 생산조절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뜻 깊을 것이다, 방대한 발전의 기틀인 유통개선을 위한 소비촉진 기금의 조성 등도 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75년의 국민개인소득 530\$가 81년에는 1,284\$로 신장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축산물 소비의 격증을 의미한다. 국민의 두뇌개발과 체력증진에 축산물의 기여도는 가장 중요하다. 뜻 깊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양계인 모두는 그야말로 대동단결하여 소망스러운 양계업계를 달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  
량  
리  
가  
축  
산  
물

희소식

● 희소식

● 빠  
나  
리  
병  
(C.R.D.)  
특  
효  
약

● 어  
로  
리  
에  
발  
굴  
주

● 지방주문환경

서울 · 동대문구 전농 2동 597의 32

(한국육계회 연락처) TEL. 96-8780

— 99 —